

2021년 늦여름.  
성평등에 관심있는 남성들이 모여서  
젠더인문학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 첫 번째 시간은  
성미산 마을활동가 이종훈님을 모시고  
아빠들이 페미공부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들었습니다.

“ 두 번째 시간은  
‘같이의 가치’ 저자 황금명륜님을 모시고  
네팔경험을 통해 젠더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세 번째 시간은  
‘소수의견’ 저자 손아람님을 모시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 마지막 시간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수 한옥자님을 모시고  
성평등을 통해 가족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기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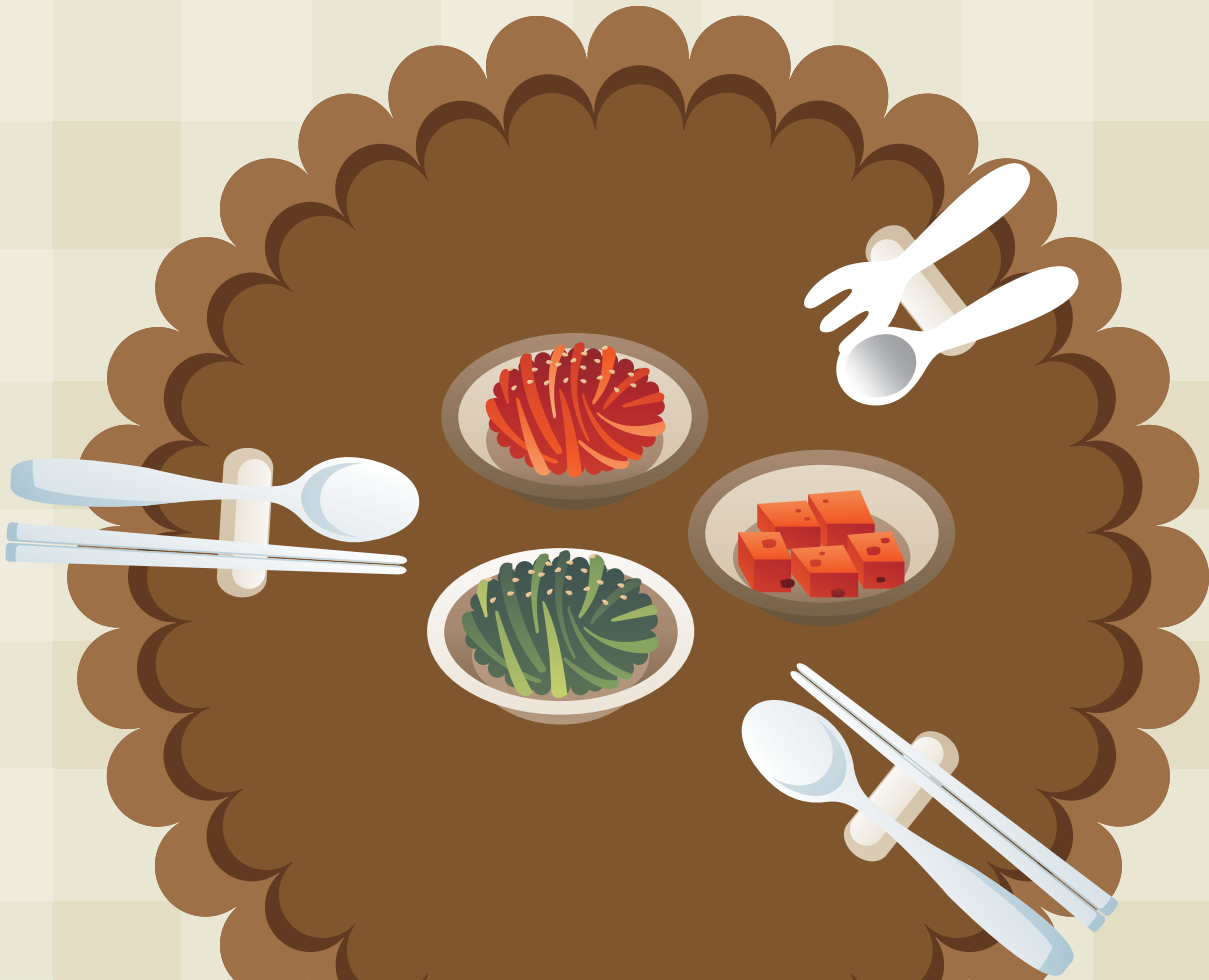
교육 후 가족과 대화를 통해 집안 일에서부터  
돌봄까지 불평등한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 평등 실천 선언을 하였습니다.

식사준비와 정리를 여성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먼저 차리겠습니다.”





청소를 여성이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청소는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앉아서 소변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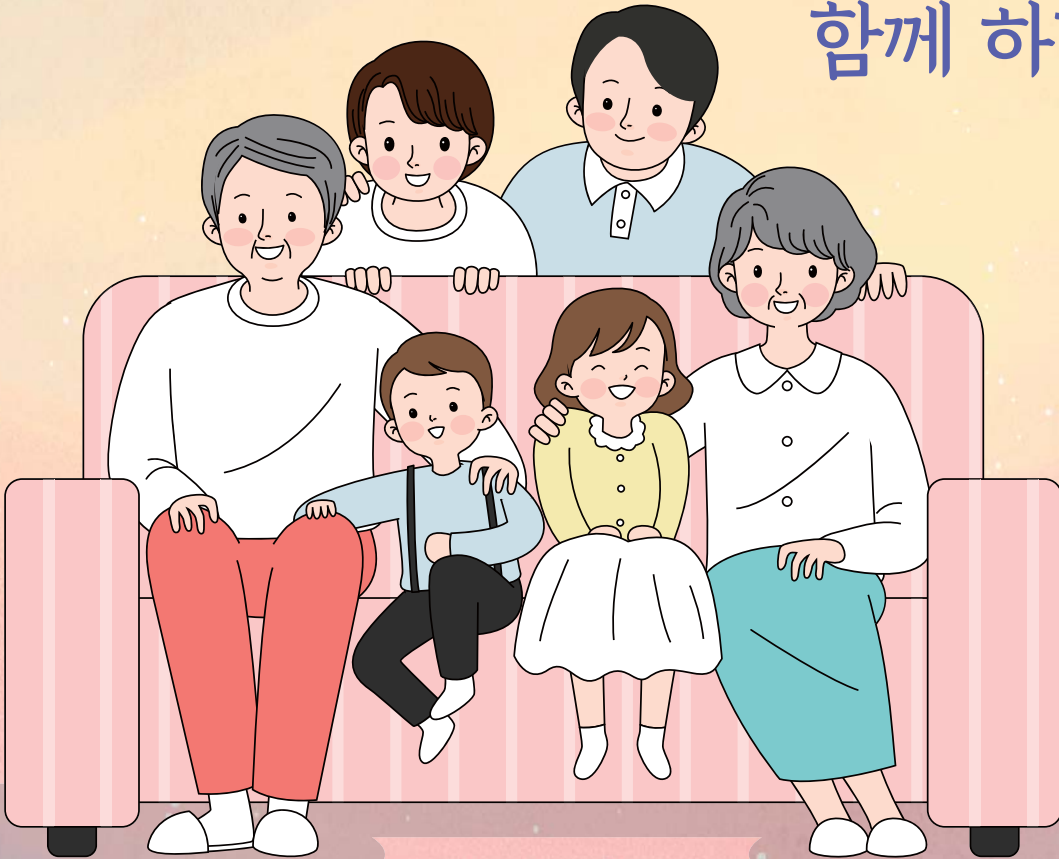
한 번도 집안 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설거지 한 아내를 안아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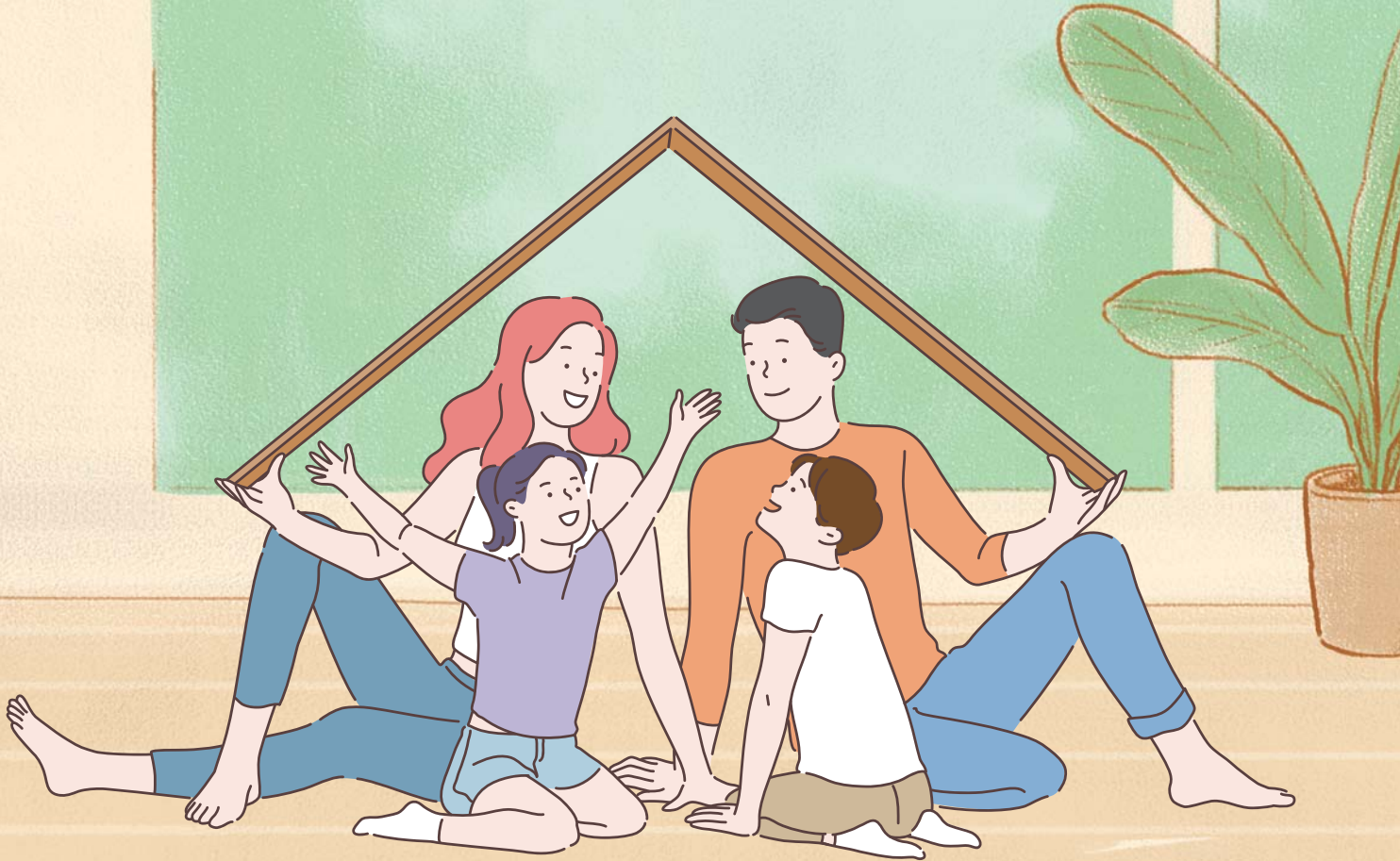
부모님 모시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언제나 아이들 유치원과 학교에 대한 일은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가족돌봄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배로 듣고 말을 아끼겠습니다.”



가족의 인생진로에 무심했고,  
각자의 꿈을 키우는데 소홀했습니다.

“가족모두의 꿈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더딘 걸음이지만  
성 평등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  
그리고 성 평등한 사회를 향해  
지금부터 한걸음 시작합니다.**